

谿谷 張維의 挽詩 研究*

김하윤**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계곡 만시의 특성 개관
- III. 계곡 만시의 감정 표출 방식
- IV. 결론

【국문초록】

谿谷 張維는 조선 중기의 壬丙 兩亂을 비롯하여 역사적정치적 시련을 오롯이 겪어야 했던 문인이다. 조선 초기에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科文體와 館閣體에서 古文으로의 文風을 이끌었고, 詩보다 散文 창작을 좋아하여 후대에 文章 四大家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의 문장은 동방제일의 문장이라는 극찬과 孔門에 속할 정도의 실력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조선 후기 문학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계곡의 시문학 중에서 挽詩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 계곡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비하여 만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疏略한 실정이니, 만시 분석을 통하여 계곡 哀祭類 문학의 일면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계곡이 152명의 亡者를 대상으로 153題 192首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만시를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詩體도 五言律詩와 七言律詩를 즐겨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목의 형식도 ‘~挽’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亡者를 향한 화자의 감정 표출 방식은 먼저 망자와 함께 공유했던 시간들을 回憶하면서 추억과 일화의 재구성성을 통해 슬픔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보였고, 자연물과 주변 배경을 끌어와서 화자의 감정을 依託하는 방식들의 만시들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부교수

人間之事가 그러하듯 亡者와의 이별이 덧없는 인생의 宿命的 別離로 받아들이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谿谷, 張維, 挽詩, 追憶, 自然物, 人生無常

I. 서론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조선 중기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시대였다. 안으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外患을 극복하기에 바빴으며, 밖으로는 明·淸의 교체로 인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壬·丙 兩亂의 후유증과 다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향한 열망과 그로 인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문신인 谿谷 張維(1587-1638)는 이러한 격동기를 함께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兩亂을 비롯하여 仁祖反正까지 역사적·정치적 시련을 오롯이 겪어왔고, 이후 사회 전반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文風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鮮初까지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科文體와 館閣體에서 古文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였고, 계곡은 이러한 변화 속에 조선후기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중기의 문풍을 이끈 문장 4대가의 핵심 인물이었다. 문집의 구성에서도 일반적인 체제와는 달리 시보다 산문을 앞에 편찬할 정도로 스스로가 시보다 산문을 좋아한다고 公言하면서¹⁾ 고문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산문에 대한 그의 열정은 동방제일의 문장이라는 극찬을 받기에 충분했고,²⁾ 孔門에 놓아두어도 顏淵이나 閔子騫

1) 『谿谷漫筆』권1, 158칙, “予少喜古文, 不肯業詩, 以詞賦應監試.”

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라며 동시대 문장가들도 인정하였다.³⁾ 비록 자신이 시보다 산문을 더 좋아한다고는 하였지만, 이는 개인적 겸사와 기호에 지나지 않을 뿐, 계곡은 산문 외에도 1,480여 수에 해당하는 다양한 詩體의 시들과 수많은 운문문학을 남기고 있다.

본고는 계곡의 만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가 시⁴⁾와 산문⁵⁾을 중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외에도 張維의 사상과 정신⁶⁾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의 연구 업적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계곡의 哀祭類 문학의 한 분야인 挽詩⁷⁾를 연구

2)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尤翁亟推谿谷文章, 謂爲東方第一.”

3) 鄭斗卿, 『東溟集』 권17, 「谿谷張相公墓誌」, “白沙常曰, 張其置諸孔門, 無愧顏閔.”

4) 김석주, 「谿谷 張維의 詩論과 詩世界」,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허민희, 「谿谷 張維의 시문관 연구-양명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정일남·류연화, 「谿谷 張維와 屈騷關聯 研究」, 『동방한문학』 제46집, 동방한학회, 2011; 민희주, 「鶴峯 金誠一과 谿谷 張維의 劍 소제 詩稿」,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제31집, 근역한문학회, 2010; 이미진, 「계곡 장유의 잡체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 임유경, 「谿谷 張維 우연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2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조정운, 「谿谷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변구일, 「谿谷 張維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학군봉, 「谿谷 張維 文學에 나타난 『莊子』 寓言 受容樣相과 그 意味」,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안득용, 「谿谷 張維 樓亭記 研究」,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학회, 2007; 조정운, 「谿谷 張維의 散文에 나타난 현실 비판 의식과 대응 양상」, 『어문연구』 제48집, 어문연구학회, 2005.

6) 김준태, 「谿谷 自由의 經世論 研究」, 『한국사상사학』 제5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8; 김호진, 「谿谷 張維의 心學思想과 實學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김세정, 「계곡 장유의 주체성과 창조정신」, 『동서철학연구』 제68집, 한국동서철학회, 2013; 오세현, 「조선중기 性理學의 위상과 谿谷 張維의 사상적 면모」, 『한국사연구』 제156집, 한국사연구회, 2012.

7) 挽詩는 輓詩나 哀悼詩로도 불리지만, 본고에서는 挽詩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 挽詞·輓章·哀挽詩·自挽詩 등을 총칭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묘지명과 같은 산문형식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계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시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이 없다는 것이 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계곡의 시문학은 모두 1480여 수에 해당하는데, 이중 挽詩는 전체 153제 192수의 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亡者들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의 逼真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계곡 만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개관해 보고, 만시에 드러난 특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망자를 향한 슬픔의 양상들을 추억과 일화의 再構, 자연과 배경에 감정 依託, 인생 무상의 숙명적 別離 등으로 나누어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⁸⁾

II. 계곡 만시의 특성 개관

만시는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지은 시를 말하고, 죽음은 떠나간 亡者와 남아 있는 生者와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⁹⁾ 일반적으로 離別은 언제라도 관계 회복의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死別은 관계의 단절이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의 슬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슬픔에 大小나 輕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는 만시가 의례적·상투적 창작물로 폄하되면서 예술성 부족을 지적받은 것도 사실이다.¹⁰⁾ 또한 친

8) 본고는 『谿谷集』(한국문집총간 권92, 민족문화추진회)과 이상현 역 『國譯 谿谷集』I - V(민족문화추진회, 2002)을 기본 자료로 하였다.

9)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고, 이에 대한 슬픔의 정서 또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감정이다. 부모, 형제, 친구 등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 망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애도시의 구성과 표현, 문학적 전통에 관한 연구는 최재남의 『韓國 哀悼詩 研究』(경남대출판부, 1997)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김하윤, 「淸陰 哀悼詩에 나타난 슬픔의 形象化 方式」, 『어문연구』 제74집, 어문연

분이 없는데도 당대 詩文에 능한 문장가에게 請託을 하거나¹¹⁾ 타인을 대
 신하여 代作한 작품들은 그 진정성에도 의심을 받으면서 虛飾의 문자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¹²⁾ 그러나 청탁과 대작의 작품
 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도 하고 작가의 曲盡한 진정성을 드러내는데
 충실했다면 충분히 문학적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는 데도 부족함이 없
 고,¹³⁾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도 만시에 드러난 계곡의 진정성은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계곡의 만시는 『谿谷集』권25부터 권33에 이르기까지 모두 153제 192
 수의 작품이 산재해 있다. 이중에서 26권에는 한 편의 작품만 보이고, 32
 권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편제는 시간 순서를 따르고자 하였으
 나, 창작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들도 상당수가 존재해서 단정짓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만시의 예만 보아도 192라는 篇數는 계곡 전체 시의 약 13%
 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곡이 시문학보다 산문문학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는 동시대 작가들과 견주어도 절대로 적은 양은 아니다.¹⁴⁾ 애도

구학회, 2012, p.208.

11) 다산은 만시가 망자와의 親疏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詩文에만 능한 자에
 게만 부탁하여 진정성이 결여되는 폐단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丁若鏞, 『與猶堂全
 書』, <喪禮外編>권2, 「弔奠考」, “或有平生親友, 不請而自製者, 爲之展告於靈几
 之前, 而收之篋笥焉可矣.”

12)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時角』,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pp.51-52.

13) 윤재환은 청탁에 의해 일면식도 없는 亡者에게 만시를 창작해 주는 것은 주변에
 文名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代人挽이 많아진 이유는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
 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윤재환, 「玉洞 李澈의 挽詩를 통해 본 朝鮮朝
 挽詩의 一 樣相」,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p.348.

14) 예를 들어 松川 梁應鼎(1519-1581)은 24수, 西溪 朴世堂(1629-1703)은 104수,
 菊圃 姜樸(1690-1742)은 57제 151수의 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계곡은 시보다 산문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挽詩만 보아도 그
 의 문학적 성과와 학문적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挽詩에
 대한 研究」, 『인문과학연구』 제16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p.165; 주영

의 대상도 모두 152명에 해당하는데, 주변의 평범하고 이름 없는 或人부터 인조의 生母인 啓運宮과 선조의 繼妃인 仁穆王后, 효종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비인 仁烈王后 등 王室의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존재한다.

대상에 따른 작품 수도 왕실 관련 인물은 5제 11수가 있고, 某氏나 或人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3제 3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도 25제 26수가 존재한다. 또한 타인을 대신해서 쓴 代作詩는 3제 4수가 있고, 묘를 이장하며 지은 改葬의 만시도 9제 11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계곡이 여러 계층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만시를 지었다는 것은 계곡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폭넓은 계층들과 다양하게 친교를 맺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곡 만시들을 제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만시 제목별 분류

연번	제목	대상	연도	형식
1	哭金而好	金而好	?	오언 고시
2	悼天	子女	?	
3	哭鄭裕叔	鄭裕叔	?	
4	金而好改葬挽詩	金而好	?	
5	哭宋丈永叔	宋邦祚	1618	
6	哭鄭亮之	鄭亮之	?	
7	哭黃兄悅之	黃悅之	?	
8	權成吉內子挽	權益慶 妻	1637	
9	哭吳肅羽(四首)	吳翻	1634	
10	哭靑興君李重老	李重老	1624	칠언 고시

아, 「朴世堂 挽詩의 흐름과 표현 양상」, 『동방학』 제21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p.38. ; 맹영일, 「국포 강박의 애도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p.326.

11	哭宋子登(二首)	宋子登	?	오언 율시
12	哭石田成先生(四首)	成輅	1615	
13	月汀先生挽詩(三首)	尹根壽	1616	
14	哭秋浦黃公(五首)	黃愼	1617	
15	李巡邊先夫人挽詩	李巡邊 先夫人	?	
16	哭金長湍尙寬(二首)	金尙寬	1621	
17	挽張訓導	張訓導	?	
18	哭尹晦遠	尹晦遠	?	
19	故許相國夫人挽詩	許相國 妻	?	
20	哭張扶餘暎	張暎	1639	
21	哭沈舍人德顯(二首)	沈德顯	1624	
22	哭李新溪子威丈(三首)	李重基	1624	
23	尹舍人先夫人挽詩	尹舍人 先夫人	?	
24	鄭內翰松挽詩	鄭松	1625	
25	挽李丈殷老	李殷老	?	
26	舅弟朴德一亡內挽(二首)	朴德一 妻	?	
27	挽崔崐如	崔崐如	?	
28	挽李丈資	李資	?	
29	鄭直長內挽詩	鄭直長 妻	?	
30	吳兵使挽	吳兵使	?	
31	挽邊丈	邊丈	?	
32	朴同樞慶新挽	朴慶新	?	
33	宋木川丈挽	宋丈	?	
34	哭鄭泰甫	鄭泰甫	?	
35	具內翰鳳瑞先妣挽	具鳳瑞 先妣	?	
36	挽沈櫟	沈櫟	?	
37	挽權察訪霏	權霏	1627	
38	韓高城挽	韓高城	?	
39	興慶園改葬挽詞(三首)	仁祖父母	1627	
40	又二首(代作)	仁祖父母	1627	
41	林處士埈挽	林埈	?	
42	柳士潔挽	柳士潔	?	
43	金同知元祿挽	金元祿	1627	

44	黃參議致敬挽	黃致敬	1627
45	嚴學士惺挽	嚴惺	1628
46	朴成川大夫人挽	朴成川 大夫人	?
47	金子長母夫人挽	金子長 母夫人	?
48	南府尹夫人挽	南府尹 妻	?
49	吳典簿士謙挽	吳士謙	1628
50	挽嚴教官寬甫	嚴寬甫	?
51	挽李持平性源	李性源	1629
52	挽許若虛	許實	1625
53	挽人	或人	?
54	挽人	或人	?
55	洪勉叔先夫人挽	洪茂績 先夫人	?
56	哭李參判昌期(三首)	李命俊	1630
57	朴丈挽	朴丈	?
58	沈家女挽	沈家女	?
59	李長城庚俊挽	李庚俊	?
60	哭南司禦學顏(二首)	南好學	?
61	挽李家少婦	李家 少婦	?
62	挽沈僉知宗直丈	沈宗直	?
63	哭趙叔司禦	趙叔	?
64	挽海嵩都尉亡姬字松月	尹新之	?
65	挽尹丈百順	尹百順	?
66	尹參奉孝述挽	尹孝述	?
67	鷄林府院君李守一挽	李守一	1632
68	哭朴大觀(三首)	朴烜	1632
69	大行大王大妃挽詞(三首)	仁穆大妃	1632
70	呂清州祐吉挽	呂祐吉	1632
71	挽鄭察訪暉	鄭暉	?
72	挽松溪李丈	李麟奇	1631
73	挽武將	武將	?
74	金鐵原內挽	金鐵原 妻	?
75	挽柳丈浩	柳浩	?
76	洪同樞思敦挽詩	洪思敦	?

77	洪主簿霽挽詩	洪霽	?	
78	宋監司聖求挽	宋象仁	1631	
79	挽李僉正溟運	李溟運	?	
80	李汝復挽	李景容	1635	
81	朴就之挽	朴筵	?	
82	挽鄭持平濟源	鄭沄	?	
83	挽鄭德餘(二首)	鄭百昌	1635	
84	金參判挽(二首)	金參判	?	
85	哭李子文	李尙質	1635	
86	完陽夫人挽	完陽夫人	?	
87	崔丈挽詩	崔丈	?	
88	李觀察汝復內挽	李景容 妻	?	
89	李僉樞植立內挽	李植立	1636	
90	挽李應寅	李應寅	?	
91	懷恩君夫人挽詞	懷恩君 妻	?	
92	朴知事夫人挽	朴知事 妻	?	
93	哭朴鐵原蓮	朴蓮	1597	
94	挽趙判事靖	趙靖	1636	
95	沈舍人光世改葬挽	沈光世	?	
96	故青雲君先夫人改葬挽	沈命世 先夫人	?	
97	延陽君夫人改葬挽	李時白 妻	?	
98	李僉知植立挽	李植立	1636	
99	完城君先王母改葬挽	崔鳴吉 先王母	?	
100	朴僉知東望挽詩	朴東望	1615	오언 배울
101	金成之先夫人挽詩	金自點 先夫人	?	
102	故相許公挽詩	許項	1618	
103	哭守夢鄭先生	鄭曄	1625	
104	進賀使李同樞屹挽詩	李屹	1630	
105	哭成永同丈	成丈	?	
106	黃參奉叔挽詩	黃叔	?	
107	啓運宮挽詩	仁祖生母	1626	
108	朴鎮岑先妣挽	朴鎮岑 先妣	?	
109	挽芝峯李尙書	李晬光	1628	
110	挽尹景潤	尹景潤	?	

111	挽鄭錦南	鄭忠信	1636	
112	李僉知勸挽詩	李勸	1635	
113	月汀先生挽詩	尹根壽	1616	
114	哭白沙李相公(二首)	李恒福	1618	칠언 율시
115	哀金將軍應河(二首)	金應河	1619	
116	哭晉安都尉柳君美	柳君美	1619	
117	宋同樞英耆挽詩	宋英耆	1620	
118	成丈浹挽詩	成浹	1620	
119	李驪州綏祿挽詩	李綏祿	1620	
120	玄軒申相公挽詩(二首)	申欽	1628	
121	哭青雲君沈德用	沈命世	1632	
122	挽成叔	成叔	?	
123	哭沙溪先生(二首)	金長生	1631	
124	挽趙善述	趙繼韓	1631	
125	挽李司禦揚休	李揚休	?	
126	權判書盼挽詩	權盼	?	
127	徐三宰潛挽詩	徐潛	1631	
128	愚伏鄭尙書挽	鄭經世	1633	
129	延平府院君挽	李貴	1633	
130	延陵府院君挽	李好閔	1634	
131	延平府院君改葬挽	李貴	1634	
132	李同知春元挽	李春元	1634	
133	李同知惟侃挽	李惟侃	1634	
134	玉峯內子挽	白光勳 妻	?	
135	挽錦溪君(二首)	朴東亮	1635	
136	挽李丈叔平	李垓	1635	
137	月沙李相公挽詩(二首)	李廷龜	1635	
138	挽金判書仲胤	金起宗	1635	
139	青原君先夫人挽	青原君 先夫人	?	
140	挽崔瀼	崔瀼	?	
141	仁烈王后挽詞(二首)	仁烈王后	1636	
142	金正郎輅挽詩	金輅	1636	
143	西平府院君改葬挽	韓浚謙	?	

144	挽高君涉	高傳川	1636	칠언 절구
145	趙重峯先生改葬挽詩(二首)	趙憲	?	
146	哭任茂叔(二首)	任叔英	1623	
147	挽崔丈	崔丈	?	
148	哭金子長(二首)	金子長	?	
149	挽元司果翼龍	元翼龍	?	
150	申兵使女兒挽	申兵使 子女	?	
151	挽某氏婦	某氏	?	
152	挽老宗室	老宗室	?	
153	朴仲漣內挽	朴漪妻	?	

계곡은 만시를 지을 때도 다양한 詩體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분류해 보면 전체 6종류의 시체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율시가 82%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언율시는 116수로 6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칠언율시가 43수로 22%의 양을 보이고 있다. 오언배율과 칠언절구도 각각 13수와 8수를 보였으며, 오언고시와 칠언고시는 각각 1수씩만 보이고 있다. 연작의 작품을 보인 작품들도 작품량과 비례하여 오언과 칠언율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칠언고시와 오언배율에서는 한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만시 시체별 분류

	오언 고시	칠언 고시	오언 율시	오언 배율	칠언 율시	칠언 절구	계
시제수	9제	1제	89제	13제	34제	7제	153제
작품수	1수	1수	116수	13수	43수	8수	193수
연작시	1제 4수	0	15제 41수	0	9제 18수	1제 2수	26제 65수

또한 계곡은 만시를 지을 때 ‘哭’, ‘悼’, ‘挽’, ‘哀’ 등의 한자를 자주 사용하여 제목을 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글자들은 당연히 슬픔이나 초상과 관련한 글자들이며, 제목에 어떠한 형식이나 일관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제목 뒤에 ‘~挽(挽詩, 挽詞)’을 붙인 형식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81제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대 대부분의 작가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¹⁵⁾ 그 뒤로 ‘挽~’의 형식으로 앞에 붙은 것이 40제에 해당하고, ‘哭~’이 30제, ‘哀~’로 시작하는 작품은 1수가 존재한다.

이처럼 계곡은 192수의 만시를 지어 다작의 작가라고 일컫기에 충분하고, 만시의 대상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신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시를 창작할 때는 古詩나 排律의 형식보다 律詩의 형식을 선호하여 지었다는 것을 82%의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목을 짓는 방식도 망자의 이름을 앞에 제시하고 제일 뒤에 만시의 형식을 드러내는 ‘~挽’의 형식이 전체에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계곡 만시의 감정 표출 방식

1. 추억과 일화의 再構

인간은 과거에 있었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들을 모두 기억 속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중 행복한 기억들만 가슴 속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 계곡도 마찬가지로 망자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망자와

15) 鄭斗卿의 만시를 일례로 들면, 전체 119제의 만시 작품 중에서 ‘~挽(挽歌)’의 형식을 보이는 제목이 전체 111제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남면, 『鄭斗卿 挽詩 연구』, 『대동한문학』 제37집, 대동한문학회, 2011, pp. 242-244.

공유했던 시간들을 再構해 가면서 망자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망자와의 추억과 일화를 하나씩 소환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망자와 공유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한 부재를 서서히 인정해가는 방식이다. 계곡은 만시의 앞부분에서 망자와 함께 했던 시간들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망자의 부재에 대한 슬픔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석전 성 선생의 서거를 애도한 시 네 수

지난해 양강에서 작별을 할 때	去歲楊江別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지	秋天落木時
술잔 잡고 옛날 흥취 되살리면서	把盃還舊興
또 만나자 손을 잡고 약속했는데	握手更前期
상하의 인사도 이제 사양하시고	不復床前拜
취하신 뒤 쓰신 시구 몇 점만 남았구나	空留醉後詩
봄바람은 부는데 한 주먹 눈물	春風一掬淚
아무리 씻어 내도 슬픔 더욱 새로워라	沾灑有餘悲 ¹⁶⁾

石田은 成輅(1550-1615)를 말하며 본관은 昌寧, 자는 重任이다. 157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였고, 정철의 문인이기도 하다. 스승의 잦은 유배생활을 보면서 벼슬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세상과 絶緣하여 그동안의 詩藁를 모두 불태워버리기도 했으며, 말년에는 세상을 비관하며 詩酒로 세월을 보냈다.

이 시는 망자를 애도한 네 수의 오언율시 중에서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계곡은 楊江¹⁷⁾에서 만났던 망자를 회상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낙엽이

16) 『谿谷集』 권27, 「哭石田成先生四首」.

진 늦가을에 계곡은 37년 선배인 망자와 함께 옛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인다. 자리가 파할 때쯤 마지막 술잔에는 다시 만나지는 기약을 담아 床下의 예18)를 갖추어 절을 하고자 하였지만, 끝내 사양하시며 취흥에 젖은 채 시구 몇 수를 남긴 것이 고인과의 마지막 모습이다. 항상 술을 마시면 시를 짓던 고인이기에 그날도 맑고 원대한 시가 읊어졌을 것이지만,19) 봄바람이 부는 어느날 망자는 영원한 작별을 기하고 말았다. 계곡은 고인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反芻해 보니 즐거웠던 시간들이 떠오를수록 슬픔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닦을수록 흐르는 눈물로 망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장단의 김상관을 곱함

내가 예전에 이상한 병 걸렸을 때	我昔纏奇疾
집까지 찾아와서 위문을 해 주었었지	公來問弊廬
떠도는 딱한 신세 서로 마음 의지하며	飄零相藉在
오랜 이별을 거듭 탄식하였는데	契闊重歎歔
이렇듯 온갖 풍파 모질게 겪은 뒤에	萬事風波後
외로운 삶 이슬처럼 허무하게 끝내다니	孤生露電虛
사립문 찾겠다고 전에 약속하였는데	柴門他日約
이젠 다시 채소국 맛 보지도 못하겠소	不復煮秋蔬 ²⁰⁾

17) 『東國八道大總圖』에 보면 京都 아래에 漢水가 있고, 그 상류에 사슴뿔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중간에 ‘楊江’이라는 표기가 있다. 지도를 근거로 양강은 한강의 상류지점인 북한강과 지금의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 근처로 판단된다.

18) 床下之禮는 床前拜라고도 하며, 덕이 높은 은자에게 절하는 것을 말한다. 『尙友錄』 권1, 「高士傳」에 보면, 옛날 諸葛亮이 龐德公을 찾아가서 床下에서 절을 했던 고사에서 유래한다. 龐德公은 제갈량이 존경했던 東漢 말의 隱士로 한번도 도회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襄陽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荊州刺史 劉表의 간곡한 요청도 거절하고, 뒤에 가족을 이끌고 鹿門山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생을 마쳤다.

19) 『東溟集』 권10, 「石田集序」, “處士托跡江湖, 寓興詩酒, 酒必賦詩, 詩格清遠.”

20) 『谿谷集』 권27, 「哭金長湍尙寬」.

이 시는 二首로 된 오언율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金尙寬(1566-1621)은 조선 중기 장단부사를 지낸 문신으로, 과거에 급제는 못했지만 관직은 낮지 않았다.²¹⁾ 자는 仲栗, 호는 今是齋이며, 金克孝의 아들이자 淸陰 金尙憲의 형이기도 하다.

망자는 가난함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交分을 잘 유지하다가 老母를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²²⁾ 계곡은 자신이 예전에 질병에 걸렸을 때도 고인이 不遠千里하며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던 일을 떠올린다. 서로가 신세 한탄과 위로를 해가며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오래도록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많은 風波를 이겨내며 지나온 세월 속에 오랜만에 들려온 망자의 비보는 이슬처럼 잠시 살다간 인생의 허무함까지 느끼게 한다. 후일에 다시 만나면 비 온 뒤의 가을밭에서 따온 채소 맛을 보자고 했던 약속²³⁾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으니, 다시 만나자던 굳은 약속도 지금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미완의 약속으로 남고 만 것이다.

박대관을 곡한 시

함께 남쪽 고을 원으로 나갈 때에	共佩炎州玦
그대는 용성 나는 금성으로	龍城與錦城
언제나 절절했던 어버이와 임금 생각	君親長繫念
헤어져 있을 때도 서로의 우정 각별했네	散聚各含情
서울에선 그 얼마나 교유가 성대했나	京洛交游盛
관각의 청현직 정말 영광스러웠지	名途館閣榮
어느새 모두가 지나간 자취	居然摠陳迹
이 일 저 일 회상하니 눈물만 흐르누나	萬事一沾纓 ²⁴⁾

21) 『月沙集』 권15, 「挽金長湍」, “君雖不第官不卑.”

22) 『谿谷集』 권27, 「哭金長湍尙寬」1首, “舊業憐懸磬, 親朋憶把盃, 倚閭無限淚, 應復徹泉臺.”

23) 『谿谷集』 권30, 「次韻寄題金長湍今是齋」, “他時會作柴門客, 共煮秋畦雨後蔬.”

이 시는 망자인 朴堧(1596-1632)의 죽음을 노래한 3수의 오언율시 중에서 두 번째 시이다. 박정의 본관은 潘南, 자는 大觀, 호는 錦洲霞谷이다. 좌참찬 朴東善의 아들이자 朴世堂의 부친이며, 인조반정에 참가하여 靖社功臣이 되었고, 대사간과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계곡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계해년 봄에 박정을 처음 만났다. 비록 아홉 살 연하이긴 하지만, 명철하고 예민한 그의 성품에 반해 깊은 교분을 맺을 수 있었다.²⁵⁾ 1629년에 박정은 龍城府使, 계곡은 錦城牧使로 동시에 外職으로 갔던 시절에²⁶⁾ 박정이 계곡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²⁷⁾ 계곡과 박정은 나이 차이도 나고 부임지도 달랐지만, 서로가 君親을 생각하는 忠孝의 마음과 崑崙山의 옥 같은 剛度を 지녔기에²⁸⁾ 충분히 許交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쪽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서신도 왕래하고 밤새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館閣의 벼슬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억도 모두가 지나간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고, 계곡은 망자와 함께 했던 여러 추억들을 떠올리며 슬픔의 눈물만 흘리게 된다.

박취지에 대한 만시

지난해 힘들게 방문해 주었을 때

往歲勞相訪

24) 『谿谷集』 권29, 「哭朴大觀」.

25) 『谿谷集』 권9, 「祭朴大觀文」, “我初識子, 癸亥之春, 少我九歲, 視我猶昆, 利名之交, 淺深可知, 翕然而集, 渙然而離, 獨我於子, 一見深託, 金石可渝, 此心無數, 子性朗銳, 是非較然, 當官敢言, 勇往直前.”

26) 金垓, 『溪巖日錄』에 보면, “1629년 11월 8일, 맑고 추운날씨였다. 조정에서는 또 한바탕 인사문제가 일어난 듯하였다. 상주의 정경세가 다시 이조판서로 관직을 옮겼다고 한다. 반면 장유는 나주목사, 박정은 남원부사, 유백증을 가평 군수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조정의 실세들이 모두 외직으로 쫓겨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27) 『谿谷集』 권31, 「次韻酬錦洲」, “每憶龍城訪錦城.”

28) 『谿谷集』 권25, 「送羅夢賚宰江東」, “潘南崑玉姿, 烈火驗純剛.”

옛 친구 만나서 얼마나 기뻐던지	懽然故意深
그대의 건강한 몸 부러워하며	羨君身許健
병든 내 신세 불쌍하게 여겼는데	憐我病偏侵
하늘에도 묻지 못할 인간의 수명	脩短天難問
부음을 듣고는 눈물 금할 수 없었다오	存亡淚不禁
소년 시절 함께 즐겁게 노닐던 곳	少年游好地
다 지난 과거의 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陳迹更堪尋 ²⁹⁾

就之는 朴籀(1583-?)의 자이며, 본관은 密陽 佐郎 朴孝男의 아들로, 沒年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50대 초반에 아들 한명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해진다.³⁰⁾ 어릴 때부터 文行으로 세상에 칭해졌고, 1624년에 海運判官이 되었으며, 1627년에 海州牧使, 1931년에 館餉使가 되었다. 술을 좋아하여 申翊聖과도 酒友로 지냈고, 관리로서의 명성도 자자하였다.³¹⁾

계곡은 4년 선배인 망자가 지난날에 자신을 직접 방문해 준 일을 떠올리며 시상 전개를 시작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라서 무척이나 기뻐고, 병든 자신의 신세에 비해 건강한 선배의 모습에 부러움을 표하기도 한다.³²⁾ 그러나 그토록 건강하던 선배였건만 들려온 부음 소식은 더욱 충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만다. 인간의 수명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하늘을 원망할 수

29) 『谿谷集』 권29, 「朴就之挽」.

30) 『東溟集』 권5, 「朴管餉就之挽」, “流年百過半, 有子一爲多.”

31) 『樂全堂集』 권5, 「贈朴尙之出按海西序」, “就之長余數年而居比隣, 情好莫逆, 俱喜酒, 余得酒, 未嘗不與就之飲, 蓋愛其有酒德, 然其所慕悅而徵逐者, 亦豈但在於酒也, 與之周旋餘十年, 而就之作官兩西, 不相聚者, 又十年矣, 其自海西而歸, 余爲置酒要與飲, 飲量不小減, 其膚澤而髮未宣, 且得能官聲藉藉, 喜其將需于世也, 未幾寢疾不起, 余操文哭之以洩悲焉.”

32) 계곡이 무슨 질병을 앓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박대관의 제문에서 보이는 1929년이라는 연도와 朴籀가 50대 초반까지 살았다는 생애를 통해서 보면, 홍역 발진에 의한 질병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谿谷集』 권9, 「祭朴大觀文」, “曩問子疾, 風疹纏嬰, 殷勤告子, 衛生之經, 同病相憐, 會面則稀.”

도 없으니 말이다. 계곡은 어린 시절 즐겁게 뛰놀던 망자와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나온 과거의 추억을 이제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냐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 자연과 배경에 감정 依託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돌려 말하지 않고 간단하고도 직설적인 방법으로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풀어내어 逼真한 슬픔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변의 자연물이나 배경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투입시키는 방법이 슬픔의 애절함을 倍加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기도 하다. 슬픔을 자연물에 의탁하거나 주변 배경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면서 떠나간 망자에 대한 슬픔의 정도를 우의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신계 이자위장의 죽음을 애도한 시

천리마 언제 한번 치달려 봤으리요	驥足何曾展
나는 그대 백리재 아닌 줄 알았었지	知非百里才
신군을 참으로 욕되게 한 적이 없는 터에	神君眞不忝
귀백이 홀연히 옥박질러 데려갔네	鬼伯忽相催
비통한 바람 속에 쓸렁한 유삼	柳髮悲風冷
저무는 햇빛 속에 쓰러지는 늙은 모친	萱闈暮景頽
불현듯 떠오르는 삶과 죽음의 문제	居然念存沒
나도 몰래 마음속이 잿빛으로 변하누나	坐覺寸心灰 ³³⁾

이 시는 新溪 李重基(1571-1624)의 죽음을 슬퍼한 오언율시의 연작시

33) 『谿谷集』 권28, 「哭李新溪子威丈」.

중에서 세 번째 작품이다. 신계의 본관은 全義, 자는 子威이며, 樂全堂 申翊聖의 외사촌이자 李耆俊의 아들이다. 1601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內膳寺 直長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1613년에 파직되었다. 1623년에 다시 등용되어 戶曹佐郎을 거쳐 新溪 縣令으로 나갔다가 1624년 임지에서 죽었다. 공의 인품은 열세 살 어린 나이로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어른 같은 모습으로 주위 사람을 감동시켰고, 모친을 잘 봉양하며, 형제들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덕을 지녔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³⁴⁾

망자에 대한 계곡의 아쉬움은 처음부터 배어 있다. 망자는 재상의 덕과 才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감 벼슬에 그친 것이 아쉽다³⁵⁾는 것을 千里馬와 百里才를 대조³⁶⁾하여 나타냈다. 신계가 한 고을의 작은 벼슬에 그칠 인재가 아닌 줄을 일찌감치 알았는데도 야속하게 神君과 염라대왕이 홀연히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망자에 대한 슬픔은 주변의 자연 배경을 통해서 표출된다. 柳絮은 出殯할 때 영구차 위 棺槨에 꾸미는 장식이다. 유상에 부는 바람을 비통하고 쓸렁하다는 감정어를 사용해서 자연에 대입시켜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망자의 모친도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저무는 햇빛 사이로 쓰러진다. ‘저물다’와 ‘쓰러지다’의 下降的 표현들이 슬픔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죽음을 대하는 시인은 삶과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속도 잿빛으로 물들어간다고 하였다.

34) 『樂全堂集』 권12, 「李新溪墓碣銘」, “公年十三而孤, 執喪如成人, 顔色聲音之戚, 能感動人, 人謂必能世其家, 入而奉孀母色亡違, 出而事諸父如嚴君, 退與稚弟讀書飭行, 處則同室, 出則竝轡, 風彩相映, 世稱聯璧.”

35) 『象村集』 권29, 「祭李新溪文」, “器則廊廟, 官何縣符.”

36) 『三國志』 권37, 「龐統傳」에 “방통은 백리제가 아니다. 그에게 治中 別駕의 소임을 맡겨야만 천리마처럼 치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始當展其驥足耳)”라고 하였다.

전부 오사검에 대한 만시

일이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	萬事眞難料
허깨비 변화하듯 함께 돌아가는구나	同歸幻化中
슬그머니 효자를 뺏어가다니	居然奪孝子
감히 하늘의 뜻 묻지도 못하겠네	不敢問天公
그늘 잃은 뜰의 난초 아위어가고	失蔭庭蘭悴
부질없이 바람 맞는 무덤 가 나무	迎風宰樹空
옛날 우공을 연상케 하는 문호	于公舊門戶
자손이 받을 경사 정녕 무궁하리라	餘慶定無窮 ³⁷⁾

吳士謙(1573-1628)의 본관은 海州, 자는 汝愼이다. 宗親府 典簿를 지냈고, 좌찬성에 追贈되었으며, 효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³⁸⁾ 아들인 吳翻은 吏曹參判 겸 兩館提學에 추증되었으며, 문장이 간결명료하고 紀遊詩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나라 사신 黃孫武의 接伴使로 椴島에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 松都에서 죽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일이다. 세상은 허깨비들의 변화처럼 움직여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망자를 뺏어가고 말았다. 세상에 이름난 효자를 뺏기고 말았지만, 감히 그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화자는 경련에서 슬픔의 감정을 자연물로 옮겨 보여주고 있다. 뜰 안 그늘가에 있는 난초는 아위어가고, 무덤가를 둘러싼 나무들 사이로 부질없는 바람만 불어대고 있다. 바람소리에 쓸쓸하고도 황

37) 『谿谷集』 권28, 「吳典簿士謙挽」.

38) 『明谷集』 권23, 「宗親府典簿吳公墓碣銘」, “公爲人忠恕倜儻, 好氣義, 事親色養, 無違志, 恤人窮好施予, 壬辰倭亂, 節度公赴戎陣, 公獨奉母, 避兵于北關, 糾合鄉卒, 制挺逐賊, 舉家賴以保全, 人以爲難, 常恨少值兵創, 不克肆力於文學, 訓誨諸子甚嚴, 天坡成文章登顯榮, 季子亦有盛名, 公雖諫於祿仕, 子若孫俱崇顯且蕃衍, 意者積之厚而流光歟, 銘曰, 噫嗟吳公, 以天坡爲子, 以陽谷爲孫, 觀于派委, 可識其源, 有壘如者, 是惟德人之墳.”

량한 주변의 풍경이 더해졌으며, ‘悴’와 ‘空’은 망자를 잃은 화자의 심정과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계곡은 비록 망자는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한나라의 于公³⁹⁾처럼 자손들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음덕을 남기고 떠났다⁴⁰⁾는 덕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조선술에 대한 만시

일찍 문단 독점한 금수의 간장	早擅詞林錦繡腸
출처에 고달팠던 불우한 만년	暮途牢落困行藏
궁한 운세 이 세상을 흰 눈으로 치며 보고	窮來俗眼從他白
병든 뒤론 시 읊느라 반백이 다 되었네	病後吟髭半已蒼
선성의 벼슬 그만두고 한가로이 지낸 사조요	官罷宣城閒謝朓
양옥에서 글을 지은 늙은 추양이었어라	書成梁獄老鄒陽
무상하다 저녁 나절 바람에 등불 꺼지다니	浮生一夕風燈盡
서쪽 교외 새벽 서리 슬프게 오열하네	哀挽西郊咽曉霜 ⁴¹⁾

이 시는 趙繼韓(1572-1631)의 죽음을 애도한 七言律詩이다. 조찬한의 본관은 漢陽, 호는 玄洲이며, 善述은 그의 자이다. 1601년에 생원시 합격, 1606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광해군 당시에는 문란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 상주목사를 자청했고, 인조반정 후에는 형

39) 『漢書』에 ‘于公之門’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조상의 집안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뜻이다. 우공은 獄訟을 공평히 처리하면서 그 음덕으로 가문을 크게 일으킬 자손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집 대문을 크게 만들었는데, 후일 아들인 우정국은 丞相이 되고, 손자 于永은 御史大夫가 되었다고 한다.

40) 『周易』, 『文言傳』중 坤卦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은 하루아침과 하루저녁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유래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라고 하였다.

41) 『谿谷集』 권31, 「挽趙善述」.

조참의와 승문원제조를 겸직하였다.

文武의 재능을 겸비하였고, 특히 詩賦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망자의 학문은 首聯부터 자세히 드러난다. 계곡은 망자가 일찌감치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詩文이 뱃속에 가득하여 언제든지 佳句를 잘 표현 해낸다고 하였다. 錦繡는 시문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從弟 令問이 李白의 글이 뛰어난 것을 칭송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⁴²⁾ 망자는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정권이 수립되자 상주목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鄭經世와 詩興을 즐기며 말년을 보냈다. 그러한 망자의 모습을 계곡은 謝朓와 鄒陽의 고사를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⁴³⁾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으로 모친과 아내,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광해군의 통치와 仁祖反正 등은 그의 삶을 굴곡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잦은 외직으로 인해 피부병과 황달 등의 질환을 다스리지 못하고 병환으로 타개하고 말았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白眼視처럼 그리 탐탁치는 않았을 것이다.⁴⁴⁾ 저녁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망자의 생이 마지막을 다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슬픔은 새벽까지 이어져 서리마저 슬피한다고 표현하였다. ‘夕’은 시간적 배경, ‘盡’은 상황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咽曉霜’의 의

42) 李白의 「冬日于龍門送從弟京兆參軍令問之淮南勤省序」는 이백이 겨울에 龍門에서 부모를 문안하기 위해 회남으로 가는 京兆參軍 李令問을 전송하는 서문이다. 여기에 이영문이 술에 취해 나를 보고 말하기를 “형은 심장과 간장 및 오장이 모두 금수로 되어 있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입을 열었다 하면 문장이 되고 붓을 휘둘렀다 하면 안개가 흩어지듯 글씨가 쓰여지시오?(弟之心肝五臟, 皆錦繡耶, 不然, 何開口成文, 揮毫霧散)”라고 하였다.

43) 謝朓는 南朝 제나라의 시인으로, 宣城太守를 역임한 인물이다. 鄒陽은 『史記』 권 83, 「鄒梁列傳」에 보면 한나라 사람으로 梁孝王의 門客이 되었다가 羊勝 등의 모함을 받고 하옥되었으며, 이후 옥중에서 상서를 하여 마침내 上客의 대우를 받게 된 인물이라고 하였다.

44) 김희자, 「玄洲 趙繼韓의 詩文學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4-15.

인화를 통해 슬픔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3. 인생무상의 숙명적 別離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지거나 사별로 인해 죽음에 대한 현실감이 높아질 때쯤이면 유한한 인생 앞에 무한한 욕심을 꿈꿔 왔던 우리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公道의 길이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면 치열하게 추구했던 삶의 목표들이 한바탕의 봄꿈처럼 부질없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다.

강물은 무수한 강물을 떠내려 보내면서도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사람을 맞고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⁴⁵⁾는 탄식처럼 계곡도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람의 생은 유한하여 天命과도 같아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생사의 갈림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여우길에 대한 만시

얼마나 훌륭한가 가문의 명성	籍甚家聲在
체악의 영광 연달아 겹쳤도다	聯芳棟蓂榮
조정에서 시종의 책임 중하였는데	清朝從班重
늘그막에 외직으로 가벼이 마쳤구려	白首郡符輕
일장춘몽이라 세상 인연 마감하고	一夢塵緣盡
뜬 구름 같은 인생 하수도 넉넉하네	浮生下壽羸
따라갈 수 없는 몸 눈물만 흘릴 뿐	無從還有涕
만사 부치면서 붉은 만장 전송하네	寄挽送丹旌 ⁴⁶⁾

45) 『文選』 권16, 「吞逝賦」, “悲夫, 川閱水以成川, 水滔滔而日度, 世閱人而爲世, 人冉冉而行暮.”

46) 『谿谷集』 권29, 「呂淸州祐吉挽」.

呂祐吉(1567-1632)의 본관은 咸陽, 자는 尙夫, 호는 稚溪이다. 1596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단절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1607년에 回答 兼 刷還使⁴⁷⁾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614년에도 陳慰使로도 명나라에 다녀왔을 정도로, 외교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棟 莠⁴⁸⁾은 형제나 형제의 우애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 체약의 영광이 겹쳤다는 것은 형인 呂裕吉⁴⁹⁾에 이어 망자도 과거에 급제하여 형제가 모두 가문을 빛냈다는 의미이다. 그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국사를 처리하는 侍從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일본과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는 외교 사신의 직분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말년에는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도 모두 한바탕의 부질없는 꿈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면서 망자는 세상과의 인연을 다하고 말았다. 계곡은 덧없게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浮生⁵⁰⁾과 같

47) 1598년부터 1841년까지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기록한 책인 『邊例集要』 권 1, 「別差倭」에 보면, 1598년(선조 31) 기록에 여우길을 通信使가 아닌 回答使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정세를 상세히 알 수 없었고 전쟁 책임에 관한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被擄人의 刷還이라는 파견 임무도 반영되었기에 ‘회답 겸 쇄신사’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48) 『詩經』, 「常棣」에 “활짝 핀 아가위꽃,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누구라 해도, 형제만한 이가 없나니.(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하였다.

49) 형인 呂裕吉(1558-1619)은 자는 德夫, 호는 春江이며, 성혼의 문인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成均館學諭와 南陽府使등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實錄의 再刊 작업에도 참여하였으며, 1609년에 鄭經世와 함께 賀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많은 군수물자를 들여오기도 하였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서 40여 년의 관직생활을 했어도 가산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고 하며, 저서로는 『春江集』이 전한다.

50) 계곡의 만시에는 인생무상과 관련한 시어들이 자주 보인다. 인생의 덧없음을 ‘浮生’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모두 13수(挽許若虛, 李長城庚俊挽, 呂淸州祐吉挽, 挽鄭德餘, 金參判挽, 哭李子文, 李僉樞植立內挽, 挽李應寅, 哭朴鐵原蓮, 李僉知植立挽, 挽趙善述, 李同知春元挽, 挽高君涉)에 이르고, ‘浮生’로 표현한 작품이 5수(哭石

아서 下壽⁵¹⁾를 살다간 망자의 삶이 어찌 보면 자신보다 넉넉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망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남은 자의 미안함은 눈물로 만사와 붉은색의 銘旌을 떠나보내고만 있다.

고군섭에 대한 만시

적막하기 그지없는 제봉의 가세	霽峯家世劇蕭條
그대와 같은 문채를 바로 봉모라 하리로다	文彩如君是鳳毛
생각나네 대각에서 치관 쓰고 노닐던 일	臺閣舊游思冠豸
늘그막엔 강호에서 집게 발 흥 돋우었지	江湖晚興入持螯
덧없는 삶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그대	浮生遽作風漚滅
아직 살아 있는 이 몸은 고달픈 나그네 신세	後死猶爲逆旅勞
남쪽 구름 저 멀리 만사만 지어 보낼 뿐	遙向南雲寄哀挽
흰머리로 세 번 호곡 마치지도 못하외다	白頭無地盡三號 ⁵²⁾

君涉은 書狀官을 지낸 高傳川(1578-1636)⁵³⁾의 자이다. 본관은 長興, 호는 月峯이고, 의병장을 지낸 霽峯 高敬命의 손자이자 高因厚⁵⁴⁾의 아들이다. 1605년에 進士, 1615년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校書館正字와 司憲府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의병을 모집하

田成先生四首, 進賀使李同樞挽詩, 李驪州綏祿挽詩, 挽成叔, 挽金判書仲胤), 그리고 내용상 무상함을 한글자의 ‘浮’로 표현한 작품들도 여러 수가 보인다.

51) 下壽는 정확하게는 나이 예순을 가리키는 말로인데, 여기서는 여우길이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을 下壽로 표현한 것이다.

52) 『谿谷集』 권31, 「挽高君涉」.

53) 계곡은 高傳川이 중국의 서장관과 고흥군수로 갈 때 2수(送高書狀君涉朝天, 送高學士君涉出宰高興.)의 전승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54) 高因厚(1561-1592)의 자는 善健, 호는 鶴峯, 시호는 毅烈이다. 형은 의병장 高從厚이며, 15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부친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과 함께 광주의 의병 6천여 명을 이끌고 금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이때 인후도 부친과 함께 전사하였다. 예조 참의에 추증되었고, 광주의 褒忠祠와 금산의 從容祠에 제향되었다.

였고,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공주로 피란 가는 東宮을 扈駕하기도 하였다. 고매한 學問과 겸손한 天稟을 지녔고, 조용하면서도 강직하다는 평을 받았다.

인용한 용사가 제 쓰임에 맞지 않으면 精神이 없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⁵⁵⁾ 이 시는 用事의 사용이 돋보이는 칠언율시의 작품이다. 首聯에서 계곡은 망자의 재능과 자질이 뛰어나 봉황의 터럭[鳳毛]같은 훌륭함을 지니고 있다고 극찬한다. 鳳毛는 자식이 훌륭한 아버지의 遺風을 잘 이어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쯔나라 王劭와 齊나라 謝超宗이 각각 桓溫과 齊武帝로부터 “봉모를 확실히 이어받아 가지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던 고사에서 왔다.⁵⁶⁾ 이는 祖父와 父親에 이어 망자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가 뛰어남을 말한 것이다. 함련에서는 망자와 함께 사헌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추억과 강호에서 주흥을 즐기던 일들을 상기한다. 多冠은 御使가 쓰던 獬豸冠으로 사헌부에서의 근무를 말하며, 집게 발 흥은 쯔나라 畢卓의 고사⁵⁷⁾에서 온 말로 술로 인한 흥취를 말한다. 그러나 망자의 삶도 어차피 유한한 삶이거늘 부질없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남아 있는 자의 여생도 나그네처럼 고달프기만 하다.

55) 申昉, 『屯庵集』, 「詩話」, “輓詞用事最難, 蓋援引弗襯, 則反成贅瘤, 援引襯矣, 而鱸錘不妙, 則沒精神.”

56) 『世說新語』, 「南齊書」 권36, <謝超宗列傳>.

57) 『晉書』 卷49, 「畢卓傳」에 보면 畢卓은 자는 茂世이고, 河南 新蔡 사람이라고 하였다. 성격이 호방하고 술을 좋아하였으며,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고,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셨다. 그는 “술을 수백 곡의 배에 가득 싣고, 사시의 맛 좋은 음식들을 배의 양쪽 머리에 썬아 두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게의 집게 다리를 들고서 술 실은 배에 둥둥 떠서 노닌다면 일생을 마치기에 넉넉할 것이다.(得酒滿數百斛船, 四時甘味置兩頭, 右手持酒杯, 左手持蟹螯, 拍浮酒船中, 便足了一生矣.)”라고 했는데, 『世說新語』에서는 “한 손엔 게 발 안주, 한 손엔 술 한 잔, 이만하면 일생을 보낼 만하지 않은가.(一手拿着蟹螯, 一手捧着酒杯, 便足以了一生.)”라고 전한다.

김 판서 중윤에 대한 만시

칼 대는 곳마다 모두가 넉넉	操刀隨處揔恢恢
재상의 자리에 근접했던 육경의 신분	八座居然近斗魁
변방이 전란에 휩싸여 파국을 맞았을 때	關塞風塵當敗局
국가의 재정 총괄하며 뛰어난 재질 발휘했네	度支金穀見通才
고어의 멸성이야 하늘에 묻기 어렵소만	臯魚滅性天難問
아이 없는 백도라 모두 슬퍼한다오	伯道無兒衆所哀
물거품 같고 환영 같은 인생임을 알지만	浮世早知泡影裡
오늘 그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오	寸心今日爲君摧 ⁵⁸⁾

仲胤은 金起宗(1585-1635)의 자이며, 본관은 江陵이고, 瀛海君에 봉해졌다. 1618년 증광 문과에 장원급제, 이듬해에 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4년 이괄의 난 때는 都元帥 張晩⁵⁹⁾의 從事官으로 공을 세워 振武功臣 2등으로 策勳되었고, 그때의 평정과정을 『西征錄』으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청렴하고 조신한 인품을 지녔다고 평가되며, 시호는 忠定이다.

계곡은 칼을 다루는 망자의 技藝는 신묘한 경지⁶⁰⁾에 가까울 정도라며 극찬하였고, 재상으로서의 재주와 식견도 모두 갖춘 인물⁶¹⁾로 평가하였다. 斗魁는 북두칠성의 第一星을 의미하고, 八座는 八座尙書의 준말로 판서와 같은 고위 관료를 말한다. 친상을 당한 臯魚의 슬픔⁶²⁾보다도 伯道

58) 『谿谷集』 권31, 「挽金判書仲胤」.

59) 張晩(1566-1629)은 선조와 인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仁同이다. 1591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八道 都元帥와 平安道 兵馬節度使를 지냈다. 1624년에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振武功臣에 책훈되었으며, 『洛書集』이 있다.

60) 『莊子』, 「養生主」, “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間, 恢恢乎其於游刃心有餘地矣.”

61) 『龍洲遺稿』 권20, 「監司尹公神道碑銘」, “瀛海君金起宗新策振武勳, 才謂聲動一時.”

62) 『漢詩外傳』에 보면 효자인 고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고어를 만나서 수레에서 내려 그 까닭을 물으니, “제가 젊어서 배우기를 좋아

처럼 대를 잊지 못하고 떠난 망자의 죽음⁶³⁾은 더욱 가슴이 아파 모두가 슬퍼하고 있다. 재상의 자리에 올라 나라에 공적을 세우며 자신의 뛰어난 재질을 발휘한 망자이지만, 결국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幻影처럼 부질없는 물거품 같다는 것을 미련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생이 물거품과 그림자[泡影]처럼 덧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곡은 망자를 잃은 슬픔에 가슴만 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문을 곱함

나라 은혜 보답할 단심이면 충분하지	報國期方寸
뜻한 대로 결말 보려 애태울 게 뭐가 있소	何煩勉志完
선을 따르려는 그 용맹은 가상하나	極知從善勇
과감하게 말할 때의 어려움은 몰랐다네	未覺敢言難
외딴 변방에 천일 다시 비쳤건만	絕域天回照
덧없는 인생 이슬처럼 사라졌네	浮生露易乾
다시금 하나하나 떠오르는 왕년의 일	尋思去年事
하염없는 눈물 속에 길이 통곡하노라	長慟淚洶瀾 ⁶⁴⁾

하여 천하를 두루 다녔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 하여도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돌아가면 따를 수 없는 것은 어버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하직하겠습니다.”하고, 서서 뜻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 63) 『晉書』 권90, 「良吏列傳」, <鄧攸>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伯道는 쯤나라 鄧攸(?-326)의 자이다. 등유는 西晉 말기에 後趙를 건국한 石勒에게 사로잡혀 그의 아래에서 參軍의 벼슬을 하였으나 서진이 멸망하고 강남에 東晉이 세워지자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尚書右僕射의 벼슬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가 동진으로 도망갈 때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만나 둘 다 살릴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버려두고 조카를 살렸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끝내 후사를 얻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두고 “하늘이 무심키도 하다. 등백도에게 아이가 없게 하다니.(天道無知, 使鄧伯道無兒.)”라고 안타까워하였다.

- 64) 『谿谷集』 권29, 「哭李子文」.

이 시는 李尙質(1597-1635)의 죽음을 애도한 오언율시의 작품이다. 이 상질의 본관은 全州, 자는 子文, 호는 家州로 權驥의 문인이다. 1616년에 진사에 합격했으나 광해의 亂政으로 산속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다가 1629년에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32년에 홍문관부교리, 1633년에 암행어사로 北關에 다녀왔다. 1634년에 원종을 종묘에 추송하는 부당함을 간하였다가 鐘城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解配되어 돌아오는 길에 淮陽에서 죽었다.

전반부를 보면 계곡은 망자의 우직하고도 강직한 충정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항상 의로운 일에 앞장서며 諫言을 서슴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635년 외딴 유배지[絶域]에서 解配해주겠다는 조정의 소식[天回照]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빨리도 病死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떠나간 망자의 삶을 뒤돌아보니 39세의 젊은 청춘을 앗아간 덧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통곡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⁶⁵⁾

IV. 결론

본고는 조선 중기 문장 사대가의 한사람인 谿谷 張維의 시문학 중에서 만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계곡은 壬·丙 兩亂부터 仁祖反正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정치적 시련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내외외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부는 변화와 개혁의

65) 『谿谷集』 권9, 「祭李子文文」, “嗚呼, 子文而止於斯耶, 聞義能徙勇也, 遇事敢言直也, 罹遷謫而不悔, 臣之義也, 收雷霆而霽澤, 上之仁也, 衆皆復而獨不淑, 非天也歟, 非命也歟.”

바람은 文風에까지 이어져서 古文 창작의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계곡 자신도 시보다 산문문학을 선호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동방제일의 문장, 孔門에 속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계곡은 모두 153제 192수의 만시를 남기고 있다. 『谿谷集』에서 32권을 제외한 25권부터 33권까지 만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보여서 정확한 편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시간의 순서에 따른 창작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만시의 대상도 王室에서부터 주변의 或人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망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시의 형식도 모두 6종류의 詩體를 사용했는데, 가장 선호한 詩體는 오언율시와 칠언율시가 전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對偶와 韻律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화자의 逼真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제목을 짓는 형식도 앞부분에 만시의 대상을 넣는 ‘~挽(挽詩, 挽詞)’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망자를 향한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첫째, 망자와의 추억과 일화를 소환하여 함께 공유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직설적인 감정의 표출보다는 주변의 자연물이나 배경을 끌어와 자신의 슬픔을 依託하여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死別로 인한 망자와의 슬픔도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부질없고 유한한 人生無常의 宿命이라는 인식이 깔린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계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좀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기 위해서는 哀祭類文學에 해당하는 挽詩나 祭文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계곡 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들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谿谷集』, 『谿谷漫筆』, 『溪巖日錄』, 『古今事文類聚』, 『樂全堂集』, 『農巖集』, 『東國八道大總覽』, 『東溟集』, 『屯庵集』, 『明谷集』, 『文選』, 『邊例集要』, 『三國志』, 『象村集』, 『詩經』, 『世說新語』, 『月沙集』, 『周易』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輓詩에 대한 研究」, 『인문과학연구』 제16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 pp.165-179.

김하운, 「淸陰 哀悼詩에 나타난 슬픔의 形象化 방식」, 『어문연구』 제74집, 어문연구학회, 2012, pp.203-228.

김희자, 「玄洲 趙繼韓의 詩文學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맹영일, 「국포 강박의 애도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pp.321-346.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時角』,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윤재환, 「玉洞 李澈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pp.343-383.

이남면, 「鄭斗卿 挽詩 研究」, 『대동한문학』 제37집, 대동한문학회, 2011, pp.239-278.

전송열, 『옛사람들의 눈물』, 글항아리, 2008.

주영아, 「朴世堂 挽詩의 흐름과 표현 양상」, 『동방학』 제21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pp.35-68.

최재남, 『韓國 哀悼詩 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Abstract

A Study on Kyegok Jang-Yu's elegy

Kim, Ha-yu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oems of Kyegok Jang-yu. The Kyegok was one of the most famous writers of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and became famous for prose. However, he excelled in poetry as well as prose literature, and this study focused on poetry.

The Kyegok left a large amount of 192 countless elegy, and the target population was 152 people. He is also evidence of his friendship with a wide range of people. In addition, the form of poems that made elegy occupied the greatest proportion,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tendency to build elegy with Yul-si, followed by Chil-un-yul-si.

As for the content of all time, there were works that expressed sadness by reconstructing the Kyegok centered on memories and anecdotes of the dead. Lastly, we sing the sorrow of the dead with the logic that it is fate that all of our life dies with the thought that everyone is free.

Key word : Kyegok, Jang-yu, Elegy, Memory, A natural object, The frailty of human life

김하윤

소속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부교수

전자우편 : kiwi4474@pcu.ac.kr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0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

